



[금융]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체질개선 1년 최대 실적 행진 이어가 04



Life

[마켓] 리서치센터장 5월 증시전망 IT·소비재 유망 08



서울 내 빈집 10만호... 76%가 구조불량 안전위험

빈집 발생 상위 5개 구역 실태조사 특성별 철거·리모델링 등 정비해야 건폐율·주차장 등 규제 완화 검토도

서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우범화 지역 확대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주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 내 빈집은 약 9만 5000호로 2015년 7만9000호에 비해 1만 6000호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빈집 발생 상위 5개 구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지는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성북4구역, 도봉3구역이었다.

연구원은 ▲구역 특성(도심/시 외곽 지역, 역세권/비역세권, 평지/구릉지) ▲빈집 입지 현황(단독/분산/집단 발



서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우범화 지역 확대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도이미지

생) ▲빈집 구조상태(외벽·기둥·지붕·출입문 등) ▲빈집 점도현황(전면도로 폭, 맹지, 계단) ▲방치 여부(폐기물 적치 여부, 주변지역 우범화 가능성) ▲주변지역 현황(신축·리모델링 발생 여부, 철거 발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가 불량한 주택이 전체의 76%인

것으로 확인됐다. 2m 미만의 협소도로에 접한 필지도 79%에 달했다. 또 10곳 중 7곳 이상의 빈집(73%)이 장기간 방치돼 폐기물이 쌓이는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범 우려 빈집 비율은 54.9%로 절반을 넘어섰다.

장남중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은 "빈집의 분포, 소유 현황, 건물 허가 유무 등 유형별 정비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에 따라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정비방향을 구체화하고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택구조가 불량하거나 폐가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에서는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주차장 확보 등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연구원은 빈집이 구역 내 분산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발생한 지역은 주택 상태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다르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구조가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연계해 개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량한 경우 건축 협정을 통해 블록단위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공유지에 있는 빈집은 공공사업

을 통해 개축하거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 임대주택,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앵커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대상지 중 옥인1구역은 노후·불량 한옥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원은 "빈집 중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한옥은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주택이 포함돼 있어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빈집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구조가 비교적 양호해 골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붕괴 위험이 있거나 상태가 열악한 빈집은 철거 후 활용해야 한다. 빈집의 구조와 상태, 마을 주택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일부터 800원 인상

오전 4시부터 3800원 적용 거리·시간 추가요금 체계 변경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800원 오른 3800원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현재 3천원인 기본요금이 800원 인상되며,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바뀐다고 1일 밝혔다.

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km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용인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가형'의 경우 2km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되며, 3km 경과 뒤 148m 또는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지 않으나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해 소형택시는 2700원으로,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각각 기본요금을 정했다.

도는 요금 인상이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차거부'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원,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으며 승객 요구에 따른 인접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

도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 점검을 벌여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2013년 10월부터 3천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해왔으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고 지난 2월과 3월 각각 3천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린 서울시, 인천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5년 6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개원 첫날 붐비는 서울식물원

1일 정식 개원한 서울 강서구 마곡 서울식물원 온실이 오전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국내 최초의 보타닉(botanic) 공원이다. 임시 개방 기간에만 250만 명이 다녀갔다. /연합뉴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서울 전역에 설치한다

680대 추가 설치로 보급률 78%

서울시는 올해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BIT(Bus Information Terminal)' 68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노선수가 1개뿐인 정류소와 실시간 도착 정보 있는 시·중점부를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 정류소에 BIT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BIT 680대(독립형 130대, 알뜰형 550대)가 설치되면서 서울시내 버스정류소의 BIT 보급률은 기존 68%에서 78%로 높아진다.

특히 시는 알뜰 BIT를 중점 보급할 방침이다. 알뜰 BIT는 노선도 표지판과 일체형으로 제작돼 별도로 지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뿐더러 제작·설치 비용도 독립형(1600만

원)에 비해 1/3 수준인 500만원이다.

시는 자치구와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BIT 설치 요구가 매년 약 400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BIT 보급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07년 BIT 6대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전체 버스정류소 6235곳 중 4254곳에 BIT 4506대를 설치했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해 버스 정보를 소외 지역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며 "연내에 경유 노선이 1개뿐인 정류소에도 적합한 소형 BIT를 개발해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유럽·중동 등 해외여행사와 서울체험 상품 개발

6개국 10개 여행사와 공동개발

서울시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 6개국 10개 여행사와 서울체험 관광 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독일, 영국, 아랍에미리트,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체험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서울 신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체험상품 공동 개발 ▲기타 한국-각국 관광분야 발전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중국의 3개 주요 여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개국, 32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총 301개의 서울 상품을 공동 개발, 5만4162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엔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

사대표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3박 4일 일정으로(5월 1~4일) 서울의 최신 관광 콘텐츠를 체험해보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팸투어에는 한복체험, 고궁산책, 김치만들기, VR게임, 유명 한류 프로그램인 '런닝맨' 체험 등 서울의 전통과 IT, 한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는 팸투어 중간에 간담회를 열고 국가별 관광객 선호와 요구사항을 조사·논의해 맞춤형 서울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